다른 교훈이 끼면 목회는 장사다

(딤전1:1~11)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른 교훈이 끼면 목회는 장사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다른 교훈이 끼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목회는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분류가 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교인들을 돌보며 목회자의 입장에 서있는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 반도의 끝부분에 에베소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가 첫 번째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목사님들이 설교시간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주로 다른 교훈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내용물입니다.
다른 교훈이 설교시간에 발견되는 거예요.
즉, 말씀에 근거돼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이 말씀 속에 다른 교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절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 같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 속에서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핍박도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확장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내부로부터 부패합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에 사시는 교민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8년째 듣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로원복음방송을 소개하셔서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지난 월요일 배교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생긴다고 하는 그 말에 듣고 그분이 굉장히 놀라서 뛰어왔더라는 거예요, '어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생긴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왜 제가 놀랐느냐 하면, 성도님들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무의식중에 무한의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뢰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늘 보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비밀리에 벌써 활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너무 낯설고 어색한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비밀리에 활동할 수가 있을까?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비밀리에 활동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상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 이건 참 교회는 아니거든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 교회와는 다른 거예요, 이 중에서도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은, 예수님이 열

두 제자를 불렀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 부름 받은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사람이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방면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선민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한 어조로 나무라십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나무라신 사람들이 소위 요즘 식으로 말해 정통교단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에 서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종교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땠냐 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 자신보다 더욱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나무라신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방인이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다 선민이 죽였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탄,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천사인데, 하나님을 모시던 자 중에서 사탄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천국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등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깨어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신뢰를 주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아예 잠든 상태로 교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나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한 게 다 통합측 장로교단이에요, 통합측 장로교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 교단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단들은 우리가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엔 발길도 들이지 말고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온 것이 밝혀지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발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단들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 비밀리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중에 그들에 의해서 나오는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으로써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건 말씀으로부터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망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다른 교훈이 돼버릴 때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목회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는 교훈에 불순물이 끼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다보면 목회는 결국에 장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교회가 부흥한 것일까요?
만 명 이만 명 삼만 명 되는 교회를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부흥한다고 하실까요?
아니요, 교회의 부흥은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SK 코오롱, 이런 기업들의 부흥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장사가 잘되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른 교훈 때문에 교인이 많이 몰려들면 장사가 잘된 것이고,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손님이 늘어난 겁니다.
장사가 뭡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줌으로써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장사에요.
다른 교훈이 설교 속으로 끼어들어가 버리면 목회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의 기준은 뭘까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생각에 생각을 연쇄적으로 해나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있고,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은 십자가 앞쪽으로는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다른 교훈은 교인의 마음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

음을 십자가 앞쪽 이 세상 안에 머물도록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회는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바른 말씀은 뭐냐?
어떡하든지 교인들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향하게끔 교훈하는 것이 바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돌아보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저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잠깐이라도 머물게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십자가 너머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느냐, 라는 걸 잘 살펴서 계속 이 땅에 머물도록 교훈을 하시는 목사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건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나한테서 얻기 위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교훈의 기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저 말씀대로 따라가면 십자가 앞쪽 세상에 머물게 되느냐,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너머로 가게 하는 말씀이 계속 전해진다면 그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쪽 세상에 머물도록 자꾸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면 된다, 자꾸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목사님은 당장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가게니까,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 섬기죠?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사랑과 권면과 훈계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새 신자가 오면 난리법석을 떨어요.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교훈의 예를 들어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집착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화와 족보라는 게 대체 뭘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변형시켜나가느냐 하면, 구약성경 중의 유명한 인물들인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러한 인물들과 24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들의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가상의 족보를 만들어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도 그 어느 하나의 족보에 속한 것으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도 도시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하는 것의 기원을 신적인 근원에서부터 찾아내려는 것인데, 이게 다 인간세상에서의 나의 가치를 더 무게 있게 하고 더 자긍심 가질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인간세상 안에서 비교적 나는 어느 족보에 속해있다, 라고…
제가 어렸을 때 태씨 가문의 할아버지들이 모이시면 하여간 빼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태씨의 조상이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라는 거예요.
대씨가 발해가 망하고 고려에 투항할 때 고려 왕건이 투항하는 호족세력을 융합시키기 위해 대우하는 차원에서 대자에다 점 하나를 찍어주었는데, 크다는 말이 강조되어서 점 하나를 붙여서 태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비록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의 후손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탐착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라는 이름에 붙은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려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이라든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선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말씀을 전해도 십자가말씀 밖에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청결한 마음과 연관 지으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절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백설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케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내 남편도 하나님이 대하시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하나님이 대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내 남편을 대하고 내가 내 자식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더러운 마음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로 마음에 사랑해서 좋아해서 갖고 있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내라고 하는 게 청결한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잘되게 해주시라고 부탁하면 목사님은 '사업을 마음에서 떼 내세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 마음에서 떼 내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선한 양심이라는 건, 이제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나를 돌아보는 분별력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를 돌아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더러움이고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 그건 아주 의로움으로 생각해버린다든지,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선한 것인 줄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대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영적인 간음의 현장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이것들을 말씀으로 깨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지금 붙어 있는가를 보고 빨리 십자가를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양심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찾으러 올 때는 적어도 내 마음에 선점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딴 것을 좋아하는 이런 외식됨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참 교훈이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말씀은 십자가말씀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성경 66권의 그 많은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 십자가사건인 이 말씀의 천변만화하는 적용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장사로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가 되고자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잘될 것이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집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업을 마음에서 떼 내게 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붙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게끔 하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그 사람이 사업장에 나갔을 때 그 사업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신다' 이게 벌써 마음을 땅에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교훈이고 장사하는 겁니다.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기준 때문에 어려워요.
교인이 많이 늘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없는 지금이 불만스럽고 괴롭고, 어떡하면 교인을 더 끌어들일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들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말씀만 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목회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게 부흥이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고 약속을 해줌으로써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가 잘되는 것이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말씀만 전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목회자 자신이 십자가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될 걸 안다면 십자가말씀 말고 다른 걸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주제만 갖고, 한 가지 주제가 아니에요, 유일한 주제에요, 유일한 주제.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때 이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족하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교훈?
십자가 외에 다른 교훈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십자가가 잊혀 진 채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중 아닙니까?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게 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가 십자가주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1년 52주가 십자가주간이어야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말씀 이외의 다른 교훈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위임해주신 목회가 장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